

‘기대주’ 김기훈 5볼넷 고전... 제구력 숙제 받았다

KIA, KT와 연습경기 3-4 패
스프링캠프서도 볼넷 12개 지적
4이닝 1피홈런·3실점 패전 쓴맛
힘 있는 직구·좌우 코너워크 장점
임기영 오늘 마지막 시범 경기 선발

KIA 타이거즈 ‘고졸 투키’ 김기훈이 속제와 희망을 동시에 보여줬다.

김기훈이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4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팀이 3-4로 지면서 김기훈이 패전 투수가 됐다.

이번 시범경기 들어 김기훈의 두 번째 등판이었다. 김기훈은 지난 15일 KT 위즈와의 홈경기를 통해 시범경기 첫 등판에 나섰다.

선발로 출격한 김기훈은 선두타자 황재균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은 뒤, 송민섭과 박경수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1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9km를 찍었다.

하지만 KIA의 1회말 공격이 끝난 뒤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중단됐고, 우박까지 쏟아지면서 결국 경기는 우천 취소 됐다.

김기훈의 시범경기 첫 등판 기록도 비와 함께 ‘취소’ 됐다.

19일 경기를 통해 김기훈의 프로 첫 기록판에 4이닝 3피안타(1피홈런) 5볼넷 4탈삼진 3실점이 쓰였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5볼넷이다. 앞선 스프링캠프 연습 경기에서도 김기훈이 가장 약점을 보였던 부분이다.

김기훈은 선두타자 이정후와의 승부에서부터 볼넷을 기록했다. 송성문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한 김기훈은 1사 1·2루에서 박병호에게 좌측 2루타를 맞으면서 선취점을 내줬다.

이어 샌즈를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웠지만 임병욱에게 세 번째 볼넷을 내주면서 김기훈이 긴 1회를 보냈다.

2회도 볼넷으로 시작했다. 희생번트에 이어 좌측 안타로 김기훈이 두 번째 점수를 내줬다.

3회 시작은 홈런이었다. 선두타자 김하성에게 좌중간 홈런을 허용한 김기훈은 박병호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샌즈와의 승부가 볼넷으로 끝났다.

김기훈은 스프링캠프에서도 4경기에서 6.2이닝을 던지는 동안 12명의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다. 제구 난조로 위기를 자초한 뒤, 장타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시범경기에서도 볼넷이 실점으로 이어졌다.

3개의 볼넷이 나온 1회 투구수가 37개에 이르는 등 선발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볼넷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다시 한번 볼넷 숙제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김기훈은 자신의 힘도 유감없이 보여줬다. 3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김기훈은 4회에는 앞선 이닝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힘 있는 직구를 바탕으로 좌우 코너를 공략하면서 첫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탈삼진 두 개도 보태면서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김기훈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KIA는 21일 임기영을 선발로 해 시범경기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9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시범경기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의 선발 김기훈이 투구하고 있다. 김기훈은 지난 15일 광주 KT전에서 선발 등판해 10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우천 노גע임이 선언됐다. <KIA타이거즈 제공>



반발계수 낮춘거 맞나?

KBO, 공인구 무작위 조사
기준치 위반업체에 주의

2019 KBO리그 새 공인구 반발계수가 예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KBO 사무국은 반발계수 기준치를 어긴 공을 만든 공인구 제조업체 스카이라인에 야구 규약에 따라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발표했다.

KBO 사무국은 스카이라인의 AAK-100 샘플 3타(36개·1타 12개)를 무작위로 수거해 11~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KBO는 기승을 떨치는 타고투저 현상을 개선하고 한국 야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해 12월 규약위원회에서 공인구의 반발계수 허용범위를 기존 0.4134~0.4374에서 일본프로야구(NPB)와 같은 0.4034~0.4234로 줄였다.

반발력을 줄여 불이 멀리 뻗어가는 걸 인위적으로 조정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KBO의 1차 수시 검사 결과 검사한 공의 평균 반발계수는 0.4247로 새 공인구 최대 허용치인 0.4234보다 높았다.

한 타의 반발계수는 0.4231로 기준치를 충족했으나 나머지 2타의 반발계수는 0.4261, 0.4248로 측정됐다. 지난해까지의 공인구 기준을 만족하는 수치다.

KBO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스프링캠프에서 사용하라고 각 팀에 보낸 새 공인구의 반발계수는 정상으로 측정됐지만, 이번에는 기준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O 사무국이 새 공인구 도입을 서두른 측면도 있고, 제조업체도 새 공인구의 기준에 맞는 균일한 테스트를 광범위하게 못 한 것 같다”며 “이런 시일 내 반발계수 균일화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인구 제조업체에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다.

야구규약 ‘KBO 경기 사용자 규정’ 7조를 보면, 제조 기준을 어긴 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제재를 받는다.

1년 동안 1회 위반하면 벌금 1000만원, 1년 동안 2회 위반하면 두 번째 위반 분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1년 동안 3회 위반하면 경기 사용자 승인을 취소한다.

공인구 제조업체인 스카이라인은 2020년까지 3년간 KBO리그에 공을 납품한다.

/연합뉴스

금요일 야구경기 오후 7시에도 개시

KBO 이사회...미세먼지 경보 발령 없어도 취소 가능

금요일 야구보는 시간이 달라진다.

KBO가 19일 창원NC파크 회의실에서 2019년 KBO 제2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올 시즌 ‘금요일 7시 경기’가 가능해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마케팅 활성화 차원에서 평일 금요일 경기에 한해 구단의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 개시 시간을 오후 7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평일 경기는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다.

미세먼지 취소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이사회는 미세 먼지 경보 발령이 없더라도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KBO는 경기 개시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경보(PM2.5(초

미세먼지) 150 $\mu\text{g}/\text{m}^3$ 또는 PM10(미세먼지) 300 $\mu\text{g}/\text{m}^3$ 이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발령 시 경기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상태가 되면,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경기 시작 이후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만 심판위원의 판단에 따라 경기 취소가 가능하다. 정식경기 성립 여부는 월드컵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KBO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단체지원금으로 마스크 75만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주전 3루수 낙점

피츠버그 단장 美 언론과 인터뷰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주전 3루수 경쟁에서 승리했다. 빌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은 19일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주전 3루수로 강정호, 유격수로 에릭 곤살레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폴린 모란, 곤살레스는 케빈 뉴먼과의 주전 경쟁을 각각 이겨내고 오는 29일 열리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 개막전에 선발 출전한다.

헌팅턴 단장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4명의 선수 모두 주전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시점에서 우리는 강정호와 곤살레스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조합이라고 느꼈다. 이는 이번 결정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전 배구단 연고지 광주냐 수원이나

조만간 결정...광주시 이번주 이전 희망서 제출·수원시도 재계약 희망

남자프로배구 한국전력 빅스톰 배구단의 연고지가 수원시에 남을지 아니면 광주시로 이전할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전력 배구단 관계자는 19일 “다음 달로 연고지 협상이 끝나는 수원시는 재계약 희망을 이미 밝혔고, 광주시는 이번 주중 연고지 이전 희망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향서에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건과 체육관 시설, 관중 동원 능력, 선수단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한전과 3년 계약을 했던 수원시는 수도권에 경기장에 있어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점과 그동안 지원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들어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한전 본사가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 정치권과 함께 한전 배구단의 광주 유치를 추진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혁신 도시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전 배구단이 광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업무체육관 또는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 시즌 4승 32패(승점 19)로 남자부 7개 구단 중 최하위로 밀렸지만,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즌 막판 상위권 팀을 잡으며 다음 시즌 재계약 가능성을 보였다. /연합뉴스